

여성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고립 긴장과 완충 효과 검증*

The Test of the Isolation Hypothesis and the Buffer Hypothesis of
Demand-Control-Support Model on the Elderly Women's Productive Activity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전임강사 조윤주**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Full-time lecturer : Cho, Yoon-Joo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olation hypothesis and the buffer hypothesis of Demand-Control-Support model in relation to activity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were 300 elderly women participating in productive activity for example paid work, voluntary activity, and grandchildren care.

This research tested four hypotheses concerning the DCS model.

<Hypothesis 1> Is there support for the isolation hypothesis, such that the lowest level of activity satisfaction is experienced by the elderly women working in an isolation situation(high demand-low control-low support)?

<Hypothesis 2> Is there support for the isolation hypothesis, such that the lowest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is experienced by the elderly women working in an isolation situation(high demand-low control-low support)?

<Hypothesis 3> Is there support for the buffer hypothesis, i. e. interaction between demand, control, and support, indicating a buffering effect of support on the negative impact of high strain on activity satisfaction?

<Hypothesis 4> Is there support for the buffer hypothesis, i. e. interaction between demand, control, and support, indicating a buffering effect of support on the negative impact of high strain on psychological well-being?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Hypothesis 1> and <Hypothesis 2> were supported. Activity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women in isolation situation was the lowest among the sample. <Hypothesis 3> was supported that family support level buffered the negative impact of high strain on activity satisfaction. But <Hypothesis 4> was not supported. Only main effect of demand level was showed on psychological well-being.

▲주요어(Key Words) : 여성 고령자(the elderly women),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 고립 긴장 가설(isolation hypothesis), 완충 가설(buffer hypothesis)

* 이 논문은 200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8).

** 주 저 자 : 조윤주 (E-mail : bijucho@sungshin.ac.kr)

I. 문제 제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볼 때 노인을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활동의 주체로서 재조명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반영하듯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권인수, 2000; 김미혜·정진경, 2003; 서양열, 2004; 이금룡, 2003; Burton, 1992; Herzog & House, 1991; Minkler & Roe, 1996; Willigen, 2000), 이들의 활동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활동 자체의 특징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과 개인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의 하나로 Karasek(1979)의 '요구-조절 모델(Demand-Control model)'과 이를 확장한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이 있다(Johnson & Hall, 1988). '요구-조절 모델'은 일이 수행되는 환경에서의 두 가지 측면, 즉, 일의 '요구(demand)' 정도와 '조절(control)' 정도에 주목하였다.

활동의 요구 정도를 정의하면 '활동 중 시간 압력, 활동량의 과중이나 역할 갈등'이며,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란 결정권의 허용 정도로 '자신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뜻한다. 활동의 요구와 조절 정도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 '고긴장(high strain) 활동', '저긴장(low strain) 활동', '능동적인(active) 활동', '수동적인(passive) 활동'이라는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고긴장 활동'은 활동의 요구 정도는 높고 조절 정도는 낮은 경우이며, '저긴장 활동'은 활동의 요구 정도는 낮고 조절 정도는 높은 것이다. 한편 '능동적인 활동'은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가 모두 높은 경우이며, 끝으로 '수동적인 활동'은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가 전부 낮은 것이다.

활동이 신체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Karasek과 Theorell(1990)은 개인이 능동적인 조건에서 일하게 되면 신체는 신진대사와 보호 작용을 활성화시키나, 긴장된 환경에서는 신진대사가 방해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능동적인 활동'과 '고긴장 활동'은 모두 심리적인 요구 정도가 높는데,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정도도 높은 '능동적인 활동'을 할 때는 신진대사 수준이 높아져 에너지 동원이 원활하다.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활동'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낮은 '긴장된 활동'을 할 때는 신진대사가 억제되고, 신체 능력이 제한되어 에너지 동원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신진대사 과정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신체의 회복을 도모한다. 이 호르몬들은 숙면시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 때 회복이나 재생이 최대화된다. '고긴장 활동'을 할 때는 혈압이 상승

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 동원과 신진대사가 감소된다. 이러한 생리적 기제를 볼 때 활동이 요구하는 정도가 높고, 개인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낮으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변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볼 때 활동의 범주 중 '고긴장 활동'이 참여자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 비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가 낮을 때, 혈압 상승이나 뇌졸중 또는 심근 경색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Johnson & Hall, 1988; Theorell et al., 1998).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낮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Barnett & Brennan, 1995; Beehr & Drexler, 1986; Karasek, 1979). 이는 다시 '요구'에 대한 '조절'의 역할에 따라 '긴장 가설(strain hypothesis)'과 여기에서 파생된 '완충 가설(buffer hypothesis)'로 요약된다. '긴장 가설'은 고긴장 활동을 하는 개인의 부정적인 결과를 주로 논하는데, 고긴장의 상황에서 개인의 안녕감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구' 정도를 '조절' 정도가 완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Fletcher & Jones, 1993; Karasek et al., 1982).

스트레스원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언급된다. 따라서 Johnson과 Hall(1988)은 '요구-조절 모델'에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여러 범주 중에 활동의 요구 정도는 높으나, 조절 정도는 낮으며, 사회적 지지도 낮은 경우를 '고립 긴장(isolation strain)'이라 하여, 이 때 안녕감이 최저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참여자가 활동의 요구 정도는 높지만 조절 정도가 낮아 특히 고긴장 상태에 있을 때 활동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Lakey & Cohen, 2000)의 주장과도 관련될 수 있다. 본인이 해야 할 생산적 활동이라는 하나의 역할이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활동 수행에 대해 가족의 지지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정서적 또는 도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개인은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고긴장 상황에서 개인이 지지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이외에 지지는 참여자의 내적 동기를 증가

시키거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관점에 사회적 지지가 도입된 이후 이것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모델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에 비해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고립 긴장 가설'을 검증하였고, '요구' 정도에 대해 '조절'이나 '지지' 정도의 완충 효과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Fletcher & Jones, 1993; Loscocco & Spitze, 1990; Roxburgh, 1996). 지난 30여년 동안 축적된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이 '긴장 가설'과 '고립 긴장 가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긴장 활동'을 하는 수행자의 정신 건강이 양호하다거나(Lerner et al., 1994), 개인이 '능동적인 활동'을 할 때 자기 개발에 적극적이고 생산성도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Dollard et al., 2000; Van Yperen & Hagedoorn, 2003). 또한 중재 변인으로서 '조절'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결과가 혼재된 경향이 있어 '완충 가설'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첫째, 이 분야에서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학문적인 기여는 상당하나 주요 가설에 대해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이 모델은 국외에서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에 적용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이를 이용한 연구들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단지 의학적인 측면에서 신체적인 변화를 측정하거나 Karasek(1979)의 절차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윤주(2007)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모델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Barnes-Farrell(2005)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들에게 적합한 활동 수준과 작업 환경을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생산적 활동이라 하면 남성만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에 못지 않게 여성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 수명을 볼 때 생산적 활동이 고령 여성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에 대해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이용, 이 모델의 주요 가설인 '고립 긴장 가설'과 '완충 가설'이 참여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여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활동의 범주를 알아보고 각 변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요구-조절 모델'과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주요 논제는 '긴장 가설'과 '완충 가설'에 관한 것이다. '요구-조절 모델'의 '긴장 가설'에 따르면 고긴장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안녕감을 경험하며, '완충 가설'은 높은 요구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완충한다는 것이다. '요구-조절-지지 모델'에서 이 가설들이 확장된 것이 '고립 긴장 가설(isolation hypothesis)'인데 요구도는 높지만 조절도와 지지도가 낮은 상황의 개인이 최저의 열악한 결과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완충 가설'은 고긴장이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고립 긴장 가설'과 '완충 가설'을 적용한 연구들을 요약하기에 앞서 고령자의 주요 생산적 활동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

다수의 연구들은 노인의 취업과 삶의 만족도간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다. Herzog와 House(1991)는 일에 대한 선택권이 많을수록, 일에 대한 시간 조정이 자유로울수록, 신체적·심리적 안녕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개인이 선택한 일의 유형외에 활동 수준도 노인의 건강과 안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로 Riddick(1985)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취업 중인 여성이 은퇴한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초기여서 축적된 연구들이 많지 않다. 서양열(2004)은 전라도 지역 노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을 조사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세 배 이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 만족도는 80%에 육박하였으나 참여 소득에 대해서는 60% 가량이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희열(1996)은 재취업 노인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배우자가 있으며, 건강하고, 이직 횟수가 적을수록,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노인일수록, 직업이 노인의 적성에 맞을수록, 원하는 직종에 종사할수록, 자녀가 노인의 취업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자원 봉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된 외국의 경우 자원 봉사와 안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Dorfman과 Moffet(1987)은 자원 봉사 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건강과 재정 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결과는 동일하였다. Willigen(2000)

은 자원 봉사가 연령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더니,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자원 봉사 활동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건강이 보다 좋아진 것으로 지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론적 설명과 노인 자원 봉사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에 치중해 있다. 최근에는 자원 봉사 활동의 동기, 활동의 지속 및 만족 요인, 봉사 활동이 삶의 만족도 또는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김미혜·정진경, 2003; 이금룡, 2003). 김미혜와 정진경(2003)은 자원 봉사 활동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활동에 투입한 시간 양보다는 봉사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활동에 대한 지지, 관심 등의 질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조부모 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이를 책임감 없는 즐거움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Minkler 등(1992)은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의 70%가 이 역할을 가치있는 일로 느끼지만 기분이 저하되고 지쳐 계속하기 어려운 느낌도 동시에 든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Burton, 1992)에서도 도전과 보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신체적으로 고되고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은 도전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다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기이며 손자녀의 애정 표현이 많다는 점은 보상으로 간주하였다. Minkler와 Roe(1996)의 연구에서도 조모가 당면하는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정부 지원의 부족과 사회적 고립감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서병선(1995)의 연구에서 조모와 손자녀간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노년기의 정서적, 심리적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모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여성 노인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개인 시간의 부족, 피곤함, 휴식 부족 등의 순이었다(권인수, 2000).

이상과 같이 노년기의 대표적인 생산적 활동으로 임금 노동, 자원 봉사, 손자녀 양육과 참여 노인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일부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다수의 연구들이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우자 유무나 건강 등의 기본적인 변인 외에도 일에 대한 선택 권한이나 일정 조정 등의 활동 수준, 참여 소득, 적성이나 선호 직종, 자녀 등 가족의 지원, 고립감, 육체적인 고달픔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였다. 따라서 이를 포괄하는 변인들을 반영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이나 활동의 특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것이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고립 긴장 가설에 관한 선행 연구

1) 활동 만족도

활동 만족도에 대해 '고립 긴장 가설'을 검증한 연구들로 Beehr와 Drexler(1986)의 연구, Fletcher와 Jones(1993)의 연구, Karasek 등(1982)의 연구가 있다. 이 중에서 Beehr와 Drexler(198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연구에서 '고립 긴장 가설'이 지지되어 이들의 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지지된 연구들은 주로 조사 대상이 단순노무직 종사자거나 남성만인 경우였고, 지지되지 않은 연구들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여성 위주의 연구일 경우였다(Van der Doef & Maes, 1999).

2) 심리적 안녕감

일반적인 안녕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고립 긴장 가설'을 적용한 연구들 중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부정적인 경우는 역시 '고립 긴장 가설'을 하는 것으로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개인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낮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Barnett & Brennan, 1995; Fletcher & Jones, 1993; Karasek et al., 1982; Lerner et al., 1994; Loscocco & Spitze, 1990; Roxburgh, 1996; Stansfeld et al., 1995). Barnett와 Brennan(1995)의 연구에서 지루하고 단조로운 업무, 시간 압박, 상충되는 요구는 응답자의 디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나, 남녀간 차이는 없었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생산적 활동에 대해 이 모델을 이용한 조운주(2007)의 연구에서는 활동의 요구 정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다. 반면 활동의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많을수록,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scocco와 Spitze(1990)는 일을 할 때 긴장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았고 행복감은 적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감은 적고 행복감은 많았으며, 남녀 모두의 안녕감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는 안녕감에 주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행복감에서만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다. Fletcher와 Jones(1993)의 연구에서도 '고립 긴장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중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가 가장 컸다. 남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tansfeld 등(1995)은 일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많고,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 높으면, 직무 만족도와 안녕감은 높았고, 정신적인 문제는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Roxburgh(1996)의 연구 결과,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으면 안녕감은 낮았고, 사회적 지지가 많으면 안녕감은 높았다. 그러나 활동의 조절 정도가 높으면, 안녕감에 긍정적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Van der Doef과 Maes(1999)는 '고립 긴장 가설'이 지지된 연구들은 이질성, 연구 대상 수, 직종, 성 등 연구 대상의 독립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은 요구와 심리적 결과를 측정하거나 개념화하는데 있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3. 완충 가설에 관한 선행 연구

1) 활동 만족도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완충 가설'에 관한 연구들로 Karasek 등(1982)의 연구, Melamed 등(1991)의 연구, 또한 Parks (1994)의 연구가 있다. 이 중 Karasek 등(198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고긴장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인데 Glegg 등(1987)은 공장에서 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여성들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요구, 조절, 지지는 활동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쳤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고립 긴장 가설'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처럼 지지되는 결과를 보인 연구(Karasek et al., 1982)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였다.

2) 심리적 안녕감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들 중 높은 요구도에 대해 조절과 지지가 복합적으로 완충한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일부이다(Karasek et al., 1982). Karasek 등(1982)은 정서적인 지지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도구적 지지는 이보다는 적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업무에 대한 지지는 정신적 긴장 상태를 감소시켰으나, 정서적 지지가 도구적 지지보다, 상사의 지지가 동료의 지지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Lerner 등(1994)의 연구에서 단순노무직, 사무직, 기타 서비스영업직 종사자 중 안녕감은 '저긴장 활동', '능동적인 활동', '수동적인 활동', '고긴장 활동'의 순서로 나타나, '저긴장 활동'의 정신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다. 이 연구에서 활동의 긴장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지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컸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Glegg 등(198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정신 건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지지된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의 차이는 연구 대상자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Karasek 등(1982)의 연구

와 같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분명하고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가설의 지지 여부는 연구 대상의 성에 따른 차이가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성에 의한 차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고립 긴장'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가 다른 범주의 노인에 비해 가장 낮을 것이다.

<가설 2> '고립 긴장'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다른 범주의 노인에 비해 가장 낮을 것이다.

<가설 3>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에 대해 '지지' 정도가 '고립 긴장' 활동을 완충할 것이다.

<가설 4>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지지' 정도가 '고립 긴장' 활동을 완충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며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 조사하였다.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 유형에는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임금 노동과 자원 봉사 그리고 손자녀 양육을 포함하였다(Glass et al., 1995; Klumb & Baltes, 1999).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는 전업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최소 주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자원 봉사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은 며느리나 딸이 취업중이어서 그들 대신 손자녀와 동·별거하면서 정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우선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고령자 10명을 유의 표집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문항 중 부정적인 문항으로 기술된 문항은 노인이 혼란스러워 답하기에 곤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문항을 긍정적인 서술문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6점 척도로 된 문항은 노인이 세분화하여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4점 척도로 간략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 고령자 314명을 대상으로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하기 전에 위에서 제시한 활동 중 하나의 활동에만 참여하는 노인인지 확인한 후 조사하였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은 가사 보조자의 도움없이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임금 노동을 하는 고령자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내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관련 이익단체, 그리고 서울시 동대문구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면접을 허락한 노인을 현장에서 조사하였다. 자원 봉사를 하는 여성 노인은 서울시 종로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과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을 소개받았다. 손자녀 양육 집단은 서울시 중랑구, 은평구, 용산구와 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기관을 방문, 면접하였다. 이외에 서울의 송파구, 성북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의 아파트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고령자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주위 친분있는 사람들을 통해 서울에 위치한 S사, P사, C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중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경우를

소개받아 면접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거나 해당 대상에 부적당한 경우 그리고 면접 내용이 불충분한 14명을 제외한 후 총 3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1) 연구 대상의 특성

본 연구 대상 300명 중 임금 노동 집단, 자원 봉사 집단, 손자녀 양육 집단은 각 100명씩으로 여성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여성 고령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범위는 60세부터 84세까지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68.1%)'가 가장 많았으며 '사별'은 27.3%로 나타났다. 총 가계 소득은 '51~100만원(22.0%)', '151~200만원(21.0%)', '201~250만원(16.0%)'의 순이었다. 주된 소득원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해서 버는 돈(3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소득(33.3%)', '자녀의 수입 또는 자녀가 주는 생활비(15.7%)'로 대부분 노인 부부의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62.7%, '어려운 편이다'가 34.0%를 차지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300

변 인	내 용	빈도(%)	변 인	내 용	빈도(%)
연 령	60세 이상~64세 이하	152(50.7)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어렵다	2(0.6)
	65세 이상~69세 이하	88(29.3)		어려운 편이다	102(34.0)
	70세 이상~74세 이하	45(15.0)		좋은 편이다	188(62.7)
	75세 이상~79세 이하	10(3.3)		매우 좋은 편이다	8(2.7)
	80세 이상~84세 이하	5(1.7)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5(1.7)
배우자 유무	있 음	204(68.1)		나쁜 편이다	48(16.0)
	없음(별거)	4(1.3)		좋은 편이다	219(73.0)
	(이혼)	10(3.3)	매우 좋은 편이다	28(9.3)	
	(사별)	82(27.3)	종교 유무	없음	50(16.7)
총 가계 소득	50만원 이하	24(8.0)		있음(개신교)	87(29.0)
	51~100만원	66(22.0)		(불교)	121(40.3)
	101~150만원	33(11.0)		(천주교)	38(12.7)
	151~200만원	63(21.0)	(기타)	4(1.3)	
	201~250만원	48(16.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59(19.7)
	251~300만원	19(6.3)		중학교 졸업	68(22.7)
	301만원 이상	41(13.7)		고등학교 졸업	103(34.3)
기 타	6(2.0)	대학교 졸업		66(22.0)	
주 소득원	일해서 버는 돈	116(38.7)	대학원 졸업 이상	4(1.3)	
	연 금	27(9.0)	거주 형태	독 거	41(13.8)
	퇴직금	6(2.0)		노인 내외만	86(28.1)
	재산 소득	100(33.3)		결혼한 아들 내외	65(21.8)
	자녀가 주는 생활비	47(15.7)		결혼한 딸 내외	19(6.4)
	기 타	4(1.3)		본인+미혼 자녀	13(4.4)
		자식 이외 친척		1(0.3)	
		노인 내외+미혼 자녀	73(24.5)		
		기 타	2(0.7)		

건강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가 82.3%로 대체로 자신의 건강을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종교는 ‘불교(40.3%)’가 가장 많았고 ‘없는 경우’는 16.7%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4.3%, ‘중학교 졸업’이 22.7%, ‘대학교 졸업’이 22.0%를 차지하였다. 현재 거주하는 형태는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가 28.1%, ‘노인 부부와 출가하지 않은 미혼 자녀와 사는 경우’가 24.5%, ‘배우자 없이 본인과 미혼 자녀가 사는 경우’가 4.4%로 핵가족의 비율이 57.0%였다. 출가한 자녀와 사는 노인은 28.2%였는데 ‘결혼한 아들(21.8%)’, ‘결혼한 딸(6.4%)’의 순이었다. 그리고 ‘독거’ 노인은 13.8%였다.

본 연구 대상을 전국 여성 노인(통계청, 2005)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이상’의 비율이 각각 4.1%와 1.2%에 불과하였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은 전국 여성 노인이 평균 112만원이었으나 연구 대상은 ‘51만원~100만원’과 ‘151원~2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대 구성은 삼세대 이상 가구가 전국 평균이 30.8%인데 반해 본 연구 대상은 28.2%로 조금 더 낮았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학력과 소득 수준면에서 일반 여성 고령자보다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2) 생산적 활동별 참여 내용

고령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취업중인 여성 노인 중 ‘농업·어업숙련 종사자(51.0%)’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단순노무 종사자(23.4%)’, ‘서비스판매 종사자(22.0%)’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농업·어업 종사자의 경우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여성 고령자가 참여하고 있는 생산적 활동별 종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직(32.0%)’, ‘판매직(27.0%)’, ‘기술공 및 준전문직(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은 각각 9.0%를 차지하였다. ‘기술공 및 준전문직’에는 ‘전통문화지도사’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업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거나 전래 동화 구연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3), ‘기술공 및 준전문직’의 하위 영역 중 (기타) 교육 준전문가는 ‘다양한 교육 수준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보조하고 실기를 지도하는 직업’으로 정의된다. 전통문화지도사의 업무가 이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에 포함시켰다.

자원 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노인복지관내 식당 급식 관리(29.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노인복지관/병원 안내 또는 접수 등 사무 보조(20.0%)’, ‘양로원 말벗 도우미(14.0%)’, ‘병원내 의료용품 관리(12.0%)’, ‘탐골 공원 또는 청계천 환경 정리(11.0%)’였다. 이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도우미’, ‘외국어 번역’, ‘반찬 봉사’ 등이 있었다. 한편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62.0%는 친손주를, 나머지 38.0%는 외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 도구

1)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요구 정도는 Karasek(1979)의 ‘직무 내용 질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를 본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시간 압력, 활

<표 2> 생산적 활동별 참여 내용

N=300

활동 유형	내 용	빈도(%)
임금 노동	전문직(교수, 약사, 교사 등)	9(9.0)
	기술공 및 준전문직(전통문화지도사)	20(20.0)
	사무직(보험사무원)	3(3.0)
	서비스직(음식점, 미용, 간병 등)	32(32.0)
	판매직(도매/소매)	27(27.0)
	단순노무직(가사보조, 아파트 청소원 등)	9(9.0)
자원 봉사	노인복지관내 식당 급식 관리	29(29.0)
	노인복지관/병원 안내접수 등 사무보조	20(20.0)
	양로원 말벗 도우미	14(14.0)
	병원내 의료용품 관리	12(12.0)
	탐골 공원 또는 청계천 환경 정리	11(11.0)
	기타(프로그램 도우미, 외국어 번역 등)	4(14.0)
손자녀 양육	친손주 양육	62(62.0)
	외손주 양육	38(38.0)

동량의 과중이나 역할 갈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67이었다.

2)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란 방법, 시간 등 결정 권한에 관한 내용인데, Wall 등(1996)의 '직무 조절 척도(Measure of Job Control)'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이를 번역,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여 3문항을 이용하였는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7이었다.

3)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생산적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는 일반적으로 '상사나 동료, 배우자·가족,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격려로 인해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로 정의되나(Lerner et al., 1994),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에게 상사나 동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통된 지지원으로서 가족의 지지만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King 등(1995)의 '근로자를 위한 가족 지지 척도(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제작하였고 가족학 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정서적 지지에 관한 4문항과 도구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6이었다.

4) 활동에 대한 만족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5) 심리적 안녕감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의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 18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6점)'로 6점 척도였으나 예비 조사

결과 연구 대상이 6점 척도를 변별하여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져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는 .80이었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와 χ^2 검증을 하였고, 생산적 활동 범주에 따른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차이에 대한 고립 긴장 가설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 분석 후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구, 조절, 지지와 같은 활동 관련 변인들이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충 효과를 파악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분석 방법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¹⁾.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생산적 활동의 범주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 가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생산적 활동의 범주를 살펴보았다. 여성 고령자가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들을 요구 정도, 조절 정도, 지지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²⁾,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성 고령자가 참여하는 전체 생산적 활동 중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 지지 정도가 모두 낮은 '수동-고립 활동'을 하는 노인은 37명으로(12.4%), 임금 노동을 하는 노인과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이 각각 15명씩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29명으로 높은 노인(8명)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요구 정도와 지지 정도는 낮지만 조절 정도는 높은 '저긴장-고립 활동'을 하는 노인은 34명(11.4%)이었는데, 임금 노동을 하는 노인(16명)이 반수 가량이었다. 이 활동을 하는 노인 중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25명으로 안녕감이 높은 노인(9명)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 정도는 높지만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가 낮은 '고긴장-고립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53명(17.8%)이었는데 이 중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25명)이 절반을 상회하였다. 이는 손자녀 양육시 활동 강도가 높고 홀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 1) 본 연구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 2) 중앙치 값을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활동의 요구 정도는 8.0점,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는 7.5점,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21.4점, 심리적 안녕감은 48.6점이었다.

<표 3> 생산적 활동의 범주

N=298

구분	임금 노동	자원 봉사	손자녀 양육	심리적 안녕감 낮음	심리적 안녕감 높음	n(%)	
수동-고립(D↓-C↓-S↓)	15	15	7	29	8	37(12.4)	$\chi^2 = .64$
저긴장-고립(D↓-C↑-S↓)	16	11	7	25	9	34(11.4)	$df = 1$
고긴장-고립(D↑-C↓-S↓)	15	13	25	45	8	53(17.8)	$\chi^2 = .05$
능동-고립(D↑-C↑-S↓)	14	5	6	19	6	25(8.4)	$df = 1$
수동-지지(D↓-C↓-S↑)	8	23	5	11	25	36(12.1)	$\chi^2 = 4.64^*$
저긴장-지지(D↓-C↑-S↑)	13	19	26	14	44	58(19.5)	$df = 1$
고긴장-지지(D↑-C↓-S↑)	3	10	5	11	7	18(6.0)	$\chi^2 = 3.82^*$
능동-지지(D↑-C↑-S↑)	14	4	19	16	21	37(12.4)	$df = 1$

* $p < .10$, ** $p < .05$. D : 요구, C : 조절, S : 지지를 뜻함.

45명인데 비해 안녕감이 높은 노인은 8명으로, 가장 열악한 조건일 수 있는 ‘고긴장-고립 활동’의 참여자 다수가 안녕감이 낮은 것은 선행 연구들의 가설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는 높는데 지지 정도는 낮은 ‘능동-고립 활동’을 하는 노인은 25명이었으며, 이 중 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노인(14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19명, 안녕감이 높은 노인은 6명이었다.

‘수동-고립 활동’, ‘저긴장-고립 활동’, ‘고긴장-고립 활동’과 ‘능동-고립 활동’ 모두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노인보다는 낮은 노인이 훨씬 더 많았다. 이 활동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지 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즉, 지지 정도가 낮으면 심리적 안녕감 역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지 정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는 낮고 지지 정도는 높은 ‘수동-지지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는 36명(12.1%)으로 자원 봉사자(23명)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11명, 높은 노인은 25명이었다. 자원 봉사 활동은 문자 그대로 본인이 자원하는 것이므로 활동의 요구도가 높지 않도록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구 정도는 낮지만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는 높은 ‘저긴장-지지 활동’은 활동의 범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58명(19.5%)이 해당되었고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 26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 중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14명이었으나 안녕감이 높은 노인은 44명으로 훨씬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5$). 즉,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가 안녕감에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구 정도와 지지 정도는 높지만 조절 정도는 낮은 ‘고긴장-지지 활동’은 전체 노인 중 18명(6.0%)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10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11명이었고 높은 노인은 7명이었다. 요구 정도,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 모두 높은 ‘능동-지지 활동’을 하는 노인은 37명(12.4%)으로 손자녀를 양육

하는 노인(19명)이 반수 이상이였다. 이 중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노인은 16명, 높은 노인은 21명으로 나타났다. ‘고긴장-지지 활동’과 ‘능동-지지 활동’은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고긴장-지지 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동-지지 활동’, ‘저긴장-지지 활동’, ‘능동-지지 활동’ 모두 지지 정도가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리하면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저긴장-지지 활동(19.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고긴장-고립 활동(17.8%)’이었다. ‘수동-고립 활동’과 ‘능동-지지 활동’은 각각 12.4%를 차지하였으며, ‘수동-지지 활동’은 12.1%였다. 이외에 ‘저긴장-고립 활동(11.4%)’, ‘능동-고립 활동(8.4%)’ 순이었으며, ‘고긴장-지지 활동’은 6.0%로 가장 적었다. 이 중에서 ‘저긴장-지지 활동’이 제일 많았는데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 이 활동이 여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활동일 수 있다. 반면 ‘고긴장-고립 활동’도 다수여서 이러한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 ‘고립 긴장 가설’이 뒷받침되는 결과로 보인다.

2. 생산적 활동 범주에 따른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차이

‘고립 긴장 가설’을 적용하여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알아보고자 <가설 1>과 <가설 2>를 수립하였다. 일원변량 분석과 사후 검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생산적 활동의 범주 중 ‘고긴장-고립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가 2.66점으로 나머지 범주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F = 4.168^{***}$), Scheffé 검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립 긴장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가 다른 범주의 노인에 비해 가장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이 지지되어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Fletcher & Jones, 1993; Karasek et al., 1982). 반면 ‘수동-지지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는 3.19점으로 활동 범주 중 가장 높았다.

<표 4> 생산적 활동 범주에 따른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일원변량 분석 결과 N=298

구분	활동 만족도 M(SD)	심리적 안녕감 M(SD)
수동-고립(n=37)	2.78 ^{ab} (.48)	47.54 ^{ab} (3.81)
저긴장-고립(n=34)	2.83 ^{ab} (.67)	49.15 ^{abc} (4.94)
고긴장-고립(n=53)	2.66 ^a (.52)	45.23 ^a (3.30)
능동-고립(n=25)	2.95 ^{ab} (.41)	46.84 ^a (3.22)
수동-지지(n=36)	3.19 ^b (.47)	51.97 ^c (4.71)
저긴장-지지(n=58)	2.93 ^{ab} (.35)	52.08 ^c (4.77)
고긴장-지지(n=18)	2.78 ^{ab} (.43)	48.94 ^{abc} (4.18)
능동-지지(n=37)	2.71 ^{ab} (.78)	51.76 ^{bc} (5.54)
F	4.168 ^{***}	15.373 ^{***}

*** $p < .001$,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다음으로 생산적 활동 범주에 따른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 차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활동 범주 중 '고긴장-고립 활동'의 심리적 안녕감 점수가 45.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F=15.373^{***}$), Scheffé 사후 검증을 한 결과 '능동 고립 활동(46.84점)'과 함께 유의하게 낮았다. 즉, '고립 긴장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다른 범주의 노인에 비해 가장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oscocco & Spitze, 1990; Stansfeld et al., 1995). 한편 '저긴장-지지 활동'과 '수동-지지 활동'은 각각 52.08점, 51.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Lerner 등(1994)의 연구에서는 '저긴장 활동'을 할 경우 정신 건강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활동이 보다 적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합하면 '고긴장-고립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모두 최저의 점수를 보여 '고립 긴장 가설'이 지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동-지지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가 활동 만족도도 가장 높았고 심리적 안녕감도 높았던 결과를 볼 때 성장보다 쇠퇴가 우선되는 고령자에게는 이 활동이 적절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활동 관련 변인간 완충 효과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에 대해 지지 정도가 고립 긴장 활동을 완충할 것이다'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는데 $\gamma = -.429^{***}$ 에서부터 $\gamma = .407^{***}$ 로 분석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호작용항은 최고 $\gamma = .860^{***}$ 인 변인이 있었으나(<부록 1> 참고),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므로 이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는 1.993으로 2에 근접하였고, Eigen 값은 13.040으로 15이하여서 회귀 분석에 적합한 모형이었다.

분석 결과 1단계로 투입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은 19%였다($F=9.652^{***}$). 이 중 연령($\beta = .366^{***}$)과 총 가계 소득($\beta = .183^*$), 주관적 경제 상태($\beta = .142^*$)가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총 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 상태가 양호할수록,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2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외에 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요구, 조절, 지지 정도를 투입하여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나($F=7.541^{***}$), 활동 관련

<표 5>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297

변 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연 령	.366***	.351***	.352***
배우자 유무	.091	.090	.084
총 가계 소득	.183*	.177*	.185**
주관적 경제 상태	.142*	.114	.105
건강 상태	.093	.100	.137*
종교 유무	.035	.035	.013
교육 수준	.008	.010	.024
요구 정도(A)		-.071	-.781
조절 정도(B)		.009	-.485
지지 정도(C)		.107	.776
(A)×(B)			-2.047**
(A)×(C)			.427
(A)×(B)×(C)			1.929***
ΔR ²	.19***	.2*	.4**
R ²	.19	.21	.25
F	9.652***	7.541***	7.061***

*p<.05, **p<.01, ***p<.001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3단계에서는 1단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2단계 활동 관련 변인외에 활동 관련 변인간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결과 4%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활동 만족도의 총 25%를 설명하였다(F=7.061***). 이 단계에서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요구×조절 상호작용항(β=-2.047**)', '요구×조절×지지 상호작용항(β=1.929***)'이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요구 정도가 높을 때 조절 정도가 상호작용하여 활동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활동 만족도가 저하된다. 또한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가 낮은 고긴장 상황에서 지지 정도가 상호작용을 하여 활동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즉, 활동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지 정도가 요구라는 스트레스원을 약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Karasek et al., 1982). 환언하면 요구도가 증가할수록 조절도가 상호작용하여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나, 요구도가 증가하고 조절도가 낮아질수록 지지 정도는 완충 작용을 하여 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활동 관련 변인간 완충 효과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지지 정도가 고립 긴장 활동을 완충할 것이다'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

다.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은 앞서 분석한 활동 만족도의 결과와 동일하며, Durbin-Watson 계수는 1.484였다. 투입한 변인 순서는 앞의 내용과 같은데, 1단계로 투입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은 6%였다(F=2.483*). 이 중 연령(β=.166*)이 유일한 설명 변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2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외에 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요구, 조절, 지지 정도를 투입한 결과 25%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31%의 설명력을 보였다(F=12.640***). 요구(β=-.149**), 조절(β=.144**), 지지(β=.393***), 변인 모두 유의하여 활동의 요구 정도가 낮을수록,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활동에 대해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단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2단계 활동 관련 변인외에 활동 관련 변인간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결과 1%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총 32%를 설명하였으나(F=10.027***), 유의한 설명 변인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요구 정도의 주 효과만이 유의한 변인으로(β=-1.021*),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활동의 요구 정도가 낮을수록,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활동 변인들이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면 심리적 안녕감은 측정 범위가 생활 전반의 적응을 포괄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약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6>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297

변 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연 령	.166*	.124*	.135*
배우자 유무	.103	.101	.118*
총 가계 소득	.023	-.003	.007
주관적 경제 상태	.109	.009	-.004
건강 상태	.031	.026	.041
종교 유무	.089	.077	.077
교육 수준	-.006	.007	.012
요구 정도(A)		-.149**	-1.021*
조절 정도(B)		.144**	-.069
지지 정도(C)		.393***	-.043
(A)×(B)			.528
(A)×(C)			.856
(A)×(B)×(C)			-.376
ΔR^2	.6*	.25***	.1
R ²	.6	.31	.32
F	2.483*	12.640***	10.027***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주요 논제인 '고립 긴장 가설'과 '완충 가설'에 대해 반론과 효과성에 있어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므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설을 수립,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여성 고령자에게 적용하였다. 우선 '고립 긴장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고립 긴장 고립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다른 활동 범주에 비해 가장 낮아 <가설 1>이 지지되었고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Johnson과 Hall(1988)이 제안한 '고립 긴장 가설'이 지지된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Fletcher & Jones, 1993; Karasek et al., 1982; Loscocco & Spitze, 1990; Stansfeld et al., 1995). 본 연구 결과에서 새롭게 나타나 주목할 것은 '수동-지지 활동'의 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으로 이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저긴장 활동'이나 '능동적인 활동'이 개인에게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는 등 요구도는 낮지만 조절도와 지지 정도가 높은 '저긴장-지지 활동'의 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는데(Dollard et al., 2000; Lerner et al., 1994; Van Yperen & Hagedoorn, 2003),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요구도 뿐 아니라 조절도도 낮은 활동이 이들에게는 보다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조절도가

높은 것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이와 상반된 결과에 대해 Bandura(1977)의 주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Jones & Fletcher, 2003, 재인용).

그는 심리학적 의미에서 조절은 환경의 특징인 동시에 개인의 특징일 수도 있어, 일례로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조립하는 작업은 실제로는 조절 권한이 적은 것이지만 일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높은 숙달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가진 조절 능력이 많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작업을 하며, 독자성이 다소 적은 수동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임무를 다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노년기의 일차적인 지지 제공원인 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의 만족도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립-고립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낮았던 것은 예상된 결과일 수 있으나 '저긴장-지지 활동'과 '수동-지지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다른 활동 범주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일을 하는 여성 근로자 중 요구도나 조절도가 낮은 일을 할 경우 정신 건강이 가장 양호했던 연구(Glegg et al., 1987)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저긴장-지지 활동'과 '수동-지지 활동'은 요구 정도는 낮고 지지 정도가 모두 높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조절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어 전자의 활동은 조절 정도가 높지만, 후자는 조절 정도가 낮은 활동이다.

조절에 대해 Heckhausen과 Shulz(1995)는 생애 통제 이론(Life-Span Theory of Control)에서 개인은 자신의 발달

상태를 조절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여부가 성공적 발달, 즉,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통제 전략을 '일차적 통제(primary control)'와 '이차적 통제(secondary control)'로 구분하였고, 개인은 두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환경과 자신을 조절함으로써 적응한다고 한다. 일차적 통제 전략은 '목표 추구의 지속성'을, 이차적 통제 전략은 '긍정적 재평가'와 '기대 낮추기'로 구분되는데 노년기에 근접할수록 심리사회적, 신체적 제한점이 증가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통제 전략의 사용을 변화시키면서 적응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일수록 이차적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한 경우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곽지현·이민규, 2006; Worch et al., 2000). 따라서 생산적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가 어떠한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다. 일차적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이라면 '저긴장-지지 활동'을, 이차적 통제 전략을 주로 선호하는 고령자라면 '수동-지지 활동'이 본인에게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 전략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완충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립 긴장 활동에서 지지 정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활동 만족도에서는 변인간 지지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즉, 고긴장 상황을 지지 정도가 완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활동의 요구 정도만이 주 효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 중 실제로 변인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것도 일부 변인에만 부분적으로 작용하였다(Hesketh & Shouksmith, 1986; Schaubroeck & Fink, 1998). Karasek 등(1982)의 연구에서처럼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이나 불안감보다는 활동 만족도와 보다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도 활동 만족도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가설을 검증한 연구들을 보면 '긴장 가설'이나 '고립 긴장 가설'이 '완충 가설'에 비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며 본 연구의 결과도 동일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된 연구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대상의 특성이나 측정 도구, 용어 개념화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횡단적 연구보다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Van der Doef & Maes, 1999). 특히 완충 가설은 성차가 명백하여 여성의 경우에 덜 지지되는 경향이 있고 남성

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Karasek et al., 1982). 이는 고긴장 상황의 일을 할 때 남녀가 받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선호도, 전업 혹은 시간제 업무와 같은 근무 형태 차이, 또는 삶에 있어서 일에 부여하는 가치 등이 상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완충 가설이 지지된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인성적 특징에 의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환언하면 조절 정도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거나(Kivimaki & Lindstrom, 1995), 개인의 내·외 통제 소재(Daniel & Guppy, 1994; Parkes, 1991)에 따라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성적 특징이 일의 조절 정도를 지각하는데 결정적일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원과 긴장간의 관계를 중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Parkes, 1994). 또한 인간과 환경과의 적합도(Person-Environment fit)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적합 모델(Congruence Model)에 따르면 인간의 특징과 작업 환경의 특징이 일치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거나 조합이 부적절할 경우 유해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즉, 어떤 사람에게서는 낮은 조절도가 적합하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높은 조절도가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의 조절 능력과 대처 유형이 잘못 결합되면 높은 요구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높은 조절 능력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반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간호사에게 높은 조절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였다(De Rijk et al., 1998).

선행 연구들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들을 통계 분석상의 미진함이나 변인에 대한 협소한 정의 등으로 설명한다(Fletcher & Jones, 1993; Lerner et al., 1994).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인 제한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으나 심리적 안녕감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적응 상태에서만 완충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Karasek et al., 1982; Loscocco & Spitze, 1990)에 근거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 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할 경우에는 조절 정도나 지지 정도가 요구 정도를 완충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개념일지라도 만약 심리적 안녕감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여성 고령자의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변인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조절 정도나 지지 정도가 요구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Karasek(1989)은 연구 초기와는 달리 '요구'와 '조절'간 상호작용 효과의 존재가 이 모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Gangster(1989)는 '조절'의 중재 효과가 이

모델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변인들이 주 효과를 보이거나 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거나 하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나 중요한 것은 가설의 지지 여부 뿐 아니라 '요구'에 대한 '조절'과 '지지'의 역할이다. '조절'이나 '지지' 정도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중에서도 '지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연구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노인을 재조명하려는 정책적, 개인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고립 긴장 가설'과 '완충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고립-고립 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의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낮아 '고립 긴장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활동 만족도의 경우 '수동-지지 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은 '저긴장-지지 활동'과 '수동-지지 활동'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손자녀 양육 노인이나 자원 봉사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므로 활동의 강도가 다소 낮으며 가족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이들에게 알맞은 활동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고령자는 '저긴장-지지 활동' 뿐만 아니라 '능동-지지 활동'을 할 때에도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이 활동들의 공통점은 조절이나 지지도는 높은 것인데 요구도면에서 상반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고령자가 처한 수준이 매우 다양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소 높은 수준을 요하는 활동부터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까지 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립 긴장 상황에서 지지 정도의 완충 효과에 대해 활동 만족도에서는 완충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 대상이 남녀 혼성일 경우 지지되는 경우가 특히 적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완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종속 변인이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은 활동 만족도보다는 활동과 관련된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통제나 대처 전략, 귀인 성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이 전국의 여성 노인보다 교육이나 소득면에서 높은 수준이었으며, 임금 노동의 직종 중 고령자 취업 비율에서 전문직이나 기술공 및 준전문직의 비율이 일반 여성 노인에 비해 높은 수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곽지현·이민규(2006). 심리적 통제 전략과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노년학**, 26(3), 565-580.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미혜·정진경(2003). 노인 자원 봉사자의 봉사 활동 헌신과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8), 221-243.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병선(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취업모를 자녀로 둔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양열(200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여름호), 31-51.
- 윤희열(1996). **재취업 노인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금룡(2003). 노인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한 모집 전략 방안: 자원 봉사 경험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노년학**, 23(3), 79-94.
- 조운주(2007).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5). 2005 고령자 통계.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2003). 한국직업사전.
- Barnes-Farrell, J. L.(2005). Older Workers. In J. Barling (Ed.), *Handbook of work stress*(pp. 431-454). Thousand Oaks: SAGE.
- Barnett, R. C. & Brennan, R. T.(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3), 259-276.
- Beehr, T. A. & Drexler, J. A.(1986). Social support, autonomy, and hierarchical level as moderators of the role characteristics-outcome relationship.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7(3), 207-214.
- Burton, L. M.(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Daniels, K. & Guppy, A.(1994).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job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uman Relations*, 12, 1523-1544.
- De Rijk, A. E., Le Blanc, P. M., Schaufeli, W. B., &

- De Jonge, J.(1998). Active coping and need for control as moderators of the job demand-control-model: Effects on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1, 1-18.
- Dollard, M. F., Winefield, H. R., & de Jonge, J.(2000). Psychosocial job strain and productivity in human service workers: A test of the demand-control-support mode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3, 501-510.
- Dorfman, L. T. & Moffet, M. M.(1987). Retirement satisfaction in the rural elderly. *The Gerontologist*, 27, 215-221.
- Fletcher, B. & Jones, F.(1993). A refutation of Karasek's demand-discretion model of occupational stress with a range of dependent measur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4), 319-330.
- Gangster, D. C.(1989). Worker control and well-being: A review of research in the workplace. In S. Sauter (Ed.), *Job control and worker health*(pp. 3-24). England: Wiley.
- Glass, T. A., Seeman, T. E., Herzog, A. R., Kahn, R., & Beckerman, L. F.(1995). Change in productive activity in late adulthood: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50(2), 65-76.
- Glegg, C., Wall, T., & Kemp, N.(1987). Women on the assembly line: A comparison of main interactive explanations of job satisfaction, absenc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273-287.
- Heckhausen, J. & Shulz, R.(1995). Life-span theory of control. *Psychology Review*, 102(2), 283-304.
- Herzog, A. R. & House, J. S.(1991). Productive activities and aging well. *Generations*, 15(1), 49-51.
- Hesketh, B. & Shouksmith, G.(1986). Job and non-job activities, job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among veterinarian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7(4), 325-339.
- Johnson, J. V. & Hall, E. M.(1988). Job strain, work place social support, and cardiovascular disease: A cross-sectional study of a random sample of the Swedish working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10), 1336-1342.
- Jones, F. & Fletcher, B.(2003). Job control,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 J. Schabracq (Ed.), *Handbook of work and health psychology*(pp. 121-142). N.Y.: John Wiley & Sons Inc.
- Karasek, R. A.(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285-308.
- Karasek, R. A.(1989). Control in the workplace and its health-related aspect. In S. Sauter(Ed.), *Job control and worker health*(pp. 129-160). England: Wiley.
- Karasek, R. A. & Theorell, T.(1990). *Healthy work, stress, productivity and the reconstruction of work life*. N.Y.: Basic Books.
- Karasek, R. A., Triantis, K. P., & Chaudhry, S. S.(1982). Coworker and supervisor support as moderators of associations between task characteristics and mental strain.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3(2), 181-200.
- King, L. A., Mattimore, L. K., King, D. W., & Adams, G. A.(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s*, 16(3), 235-258.
- Kivimaki, M. & Lindstrom, K.(1995). Effect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control on the occupational stress-strain relationship. *Stress Medicine*, 11, 7-16.
- Klumb, P. L. & Baltes, M. M.(1999). Time use of old and very old Berliners: Productive and consumptive activities as functions of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54(5), 271-278.
- Lakey, B. & Cohen, S.(2000). Social support theory and measurement. In S. Cohen(Ed.),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pp. 29-52).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rner, D. J., Levine, S., Malspeis, S., & D'Agostino, R. B.(1994). Job strai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 national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10), 1580-1585.
- Loscocco, K. A. & Spitze, G.(1990). Working conditions,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female and male factory work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December), 313-327.
- Melamed, S., Kushnir, T., & Meir, E. I.(1991). Attenuating the impact of job demand: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40-53.
- Minkler, M. & Roe, K. M.(1996). Grandparents as sur-

- rogate parents. *Generations*, 20(1), 34-38.
- Minker, M., Roe, K. M., & Price, M.(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752-761.
- Parkes, K. R.(1991). Locus of control as moderators: An explanation for additive versus interactive findings in the demand-discretion model of work stres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2, 291-312.
- Parks, K. R.(1994). Personality and coping as moderators of work stress process: Models, methods and measures. *Work and Stress*, 8, 110-129.
- Riddick, C. C.(1985). Life satisfaction for older female home makers, retirees, and workers. *Research on Aging*, 7, 383-393.
- Roxburgh, S.(1996).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September), 265-277.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aubroeck, J. & Fink, L. S.(1998). Facilitating and inhibiting effects of job 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outcomes and role behavior: A contingency mode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2), 167-195.
- Stansfeld, S. A., North, F. M., White, I., & Marmot, M. G.(1995). Work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disorder in civil servants in Londo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49(1), 48-53.
- Theorell, T., Tsutsumi, A., Hallquist, J., & Reuterwall, C.(1998). Decision latitude, job strain, and myocardial infarction: A study of working men in Stockhol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382-388.
- Van der Doef, M. & Maes, S.(1999). The job demand-control-support mode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ork and Stress*, 13(2), 87-114.
- Van Yperen, N. W. & Hagedoorn, M.(2003). Do high job demands increase intrinsic motivation or fatigue or both?: The role of job control and job social suppor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3), 339-348.
- Wall, T. D., Jackson, P. R., Mullarkey, S., & Parker, S. K.(1996). The demand-control model of job strain: A more specific tes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9, 153-166.
- Willigen, M. V.(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55(5), 308-318.
- Worch, C., Heckhausen, J., & Lachman, M. E.(2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for managing health and financial stress across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5(3), 387-399.

접수일 : 2008년 06월 19일

심사일 : 2008년 08월 13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17일

<부록 1> 독립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령	1.000	-.429 ***	-.240 ***	-.040	-.202 ***	.029	-.210 ***	-.165 **	-.011	.025	-.115 *	-.120 *	-.081
(2) 배우자 유무		1.000	.378 ***	.224 ***	.107 *	.035	.088	.050	.034	.048	.053	.059	.059
(3) 총 가계 소득			1.000	.522	.121	.185 **	.407 ***	-.020	.084	.130 *	.073	.065	.127 *
(4) 주관적 경제 상태				1.000	.159	.179 **	.198 ***	-.113 *	.136 **	.193 ***	.060	.046	.147 **
(5) 건강 상태					1.000	.096 *	.016	.146 **	.144 **	.044	.210 ***	.149 **	.198 ***
(6) 종교 유무						1.000	.179 **	.084	.028	.108 *	.085	.141 **	.113 *
(7) 교육 수준							1.000	-.026	.017	.012	.006	-.020	.018
(8) 요구(A)								1.000	-.234 ***	-.193 ***	.492	.688 ***	.302 ***
(9) 조절(B)									1.000	.306 ***	.719	.031	.709 ***
(10) 지지(C)										1.000	.141	.572 ***	.615 ***
(11) (A)×(B)											1.000	.517 ***	.860 ***
(12) (A)×(C)												1.000	.710 ***
(13) (A)×(B)×(C)													1.000

*p<.05, **p<.01, ***p<.001